

學校圖書館 資料의 諸問題

李 珪 範

〈釜山高等學校司書教師〉

〈序〉

I. 資料選擇上의 諸問題

A. 資料構成上의 諸問題

1. 資料의 量的問題
2. 藏書의 構成比率問題
3. 非圖書資料의 蒐集方案問題
4. 基本圖書目錄의 研究와 作成問題
5. 複本圖書의 限界問題
6. 出版事情의 問題

B. 資料選擇을 爲한 資料의 問題

C. 資料選擇委員會의 組織問題

II. 資料整理 및 利用上의 諸問題

A. 非圖書資料의 整理問題

B. 바람직한 館外貸出制度와 問題

C. 亡失圖書 및 破損圖書와 不適書의 處分問題

D. 圖書 및 圖書館利用指導에 關한 問題

III. 圖書館 資料經費上의 諸問題

〈序〉

學校 教育目的을 成就시키기 爲해서는 먼저 圖書館 資料(圖書 및 非圖書資料)가 豊富해야 한다. 資料(學習材)가 不足한 圖書館은 學習活動을 推進하는 에네르기의 供給源이 不足하거나 마찬가지거나 그를 利用하는 人員數와 그 機會를 줄이는 結果가 되어 學生들의 數량은 關心과 慾求를 制限하는 教育的 罪過를 범하게 된다.

豊富한 資料라고 하여도 그 量을 確保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教育課程 展開에 必要한 均衡잡힌 資料라야 하며 教師의 學習活動 推進과 學生들의 生活經

驗을 有效하게 再構成할 수 있는 충분히 研究되고 選擇된 資料라야 할 것이다.

學校 圖書館은 教材의 中心(Material Center)이고 廣範圍한 教育資料(圖書, 視聽覺資料, 特殊資料)의 管理 및 利用機關이며 學生들로 하여금 온갖 手段과 資料를 驅使하여 一生동안 自己發展의 繼續的인 能力과 研究習慣을 몸에 붙여주는 現代教育의 方法을 具現하는 教育的 場이다. 그러므로 質的인 教育計劃은 圖書館을 포함 시켜야 하며 學校圖書館 資料의 性格과 活用方法을 모르고서는 學習의 效果는 도저히 期待할 수 없다.

學校圖書館의 三要素中 가장 큰 骨格을

이루고 있는 資料問題は 복잡한 問題를 內包하고 있으며 끝없는 研究와 努力을 要求한다.

여기에서는 學校圖書館 資料의 問題를 選擇上의 諸問題, 整理 및 利用上의 諸問題, 經費上의 諸問題로 크게 三部分에 나누어서 學校圖書館이 共通의 當面한 問題를 中心으로 우리의 現實을 考察하고 將來問題에 適切을 期하는데 先進諸國의 現狀을 參照하여 共同研究하고 相互協力하는 機會(學校圖書館 實務者는 勿論, 學校管理者, 教育行政家와 같이)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 懇切하여 敢히 이 議題를 發表하는 것입니다.

I. 資料選擇上의 諸問題

A. 資料構成上의 問題

1. 資料量의 問題(圖書資料를 中心으로)

學校圖書館이 해마다 資料를 購入해 나

간다면 將來는 學校全體가 圖書館이 될 憂慮가 있지 않는가? 學校圖書館은 얼마만큼의 資料를 收集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疑問이 最初의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現實은 너무나 적은 豫算으로 겨우 經營해 나가는 學校圖書館으로서는 增加의 量보다 오히려 消耗의 量이 많아 急減되어가는 것이 苦悶이지만 究極에 가서는 어느 程度의 藏書의 量이 必要한가는 問題視되지 않을 수 없다.

學校圖書館은 出版物을 總網羅하여 收集하고 古文書에 이르기까지 民族文化遺産을 保存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學校教育을 爲한 利用上, 教育의 要求를 滿足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最少量 얼마의 圖書가 必要한가를 알기 爲하여 外國의 資料基準과 우리 나라의 基準을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미국의 학교 도서관 기준 요약표 (A. L. A. 1960)

종류 학교 규모	자		료		경 비 (1년 간)					
	도	서	잡	지		신	문	기	타	
200			국민학교							학생 250명 \$ 1,000~\$ 1,500 학생 250명 이상 학생 1인당 \$ 4~\$ 6 ※ 이상은 학생용 일 반도서 구입비로서 백과사전등 고가의 서적구입비나 기타 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250	학생 1,000명		25종							
300	미만 6,000원		중학교							
500	~10,000원		70종							
550			고등학교		최소					
600			120종		3~6종					
900			교직원관계							
1,000			잡지 25~50종							
1,200			사서관계							
1,300			잡지 5종							
1,700										
1,800										

일본 학교 도서관 기준 (문부성 1953)

종류	자 료			경 비 ※ 인건비, 특별시설 비는 제외	
	도	서	기 도 서 수		
국민학교	학생 1인당 5권이상		300종	학생 900명 이하 10종 901명 이상 15종	학생 1인당 연간 200 원 이상
중 학교	매년 학생 1명 당 0.5권 증가 할것		500종	학생 900명 이하 15종 901명 이상 20종	학생 1인당 연간 300 원 이상
고등학교			700종	학생 900명 이하 20종 901명 이상 30종	학생 1인당 연간 400 원 이상

우리 나라 각급학교 시설기준령
(각령안 1962)

종류	학교별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학교규모	학교규모			
도	(명) 1~200	(명) 1~200	(권) 300	(권) 500	(권) 800
	201~1,000		1,500	2,100	3,200
	1,001~2,000		3,000	4,100	6,200
	2,001~3,000		4,500	6,100	8,200
	3,001 이상		4,500	6,100	8,200
서	(명) 1~200	(명) 1~200	(종) 2	(종) 6	(종) 7
	201~1,000		3	8	9
	1,001~2,000		4	10	12
	2,001~3,000		5	12	12
	3,001 이상		5	12	12
잡	(명) 1~200	(명) 1~200	(종) 3	(종) 4	(종) 4
	201~1,000		4	6	6
	1,001~2,000		5	8	9
	2,001~3,000		6	10	12
	3,001 이상		6	10	12
지	(명) 1~200	(명) 1~200	(종) 3	(종) 4	(종) 4
	201~1,000		4	6	6
	1,001~2,000		5	8	9
	2,001~3,000		6	10	12
	3,001 이상		6	10	12
신	(명) 1~200	(명) 1~200	(종) 3	(종) 4	(종) 4
	201~1,000		4	6	6
	1,001~2,000		5	8	9
	2,001~3,000		6	10	12
	3,001 이상		6	10	12
문	(명) 1~200	(명) 1~200	(종) 3	(종) 4	(종) 4
	201~1,000		4	6	6
	1,001~2,000		5	8	9
	2,001~3,000		6	10	12
	3,001 이상		6	10	12

위의 표에서 美國은 學生 1人當 約 10권, 日本은 學生 1人當 5권이상이 必要함을 알려준다. 여기에 特記하고 싶은 것은 日本의 基準이 낮은 理由가 1953年度 文

部省이 年次的으로 基準을 높여 1人當 10권을 目標로 增加시킬 것을 前提로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基準案은 學生 1人當에 對한 책수가 國民學校에 約 2卷, 中學校에서 約 3卷, 高等學校에서 約 4卷인 것을 알 수 있다. 外國에 比하여 낮은 것은 現實의으로 不可避한 最少量의 基準이라는 點에서 理解가 간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實效性없는 現基準을 버리지 못하고 1962年度에 成案된 各級學校 施設基準令(閣令案)을 通過公布하지 않고 있는 理由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疑問스럽기 짝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願하고 參考해야 할것은 첫째 現 學校施設基準令 即 1959年 4月 1日 公布 實施된 中學校, 高等學校, 師範學校 施設 基準令(3學級까지는 300卷以上 3學級을 超過할 때는 그 超過하는 3學級마다 200卷 增加한다는 內容)과 1960年 5月 12日 公布한 國民學校 施設基準令(6學級까지는 500卷以上 圖書를 備置, 6學級을 超過할 때는 그 超過하는 6學級마다 300卷씩 加算하여 備置……와 같은 內容)을 廢止하고 早速한 時日內에 成案된 各級學校 施設基準 閣令案을 通過公布하기

를 바란다.

둘째로 現 閣令案이 公布된다고 할지라도 今後에 到達할 目標量을 定하여 거기에 따라 基準을 改正해나가야 할줄 믿는다.

세째로 學校圖書館 藏書가 年年 增加된 다 할지라도 學生 1人當 10卷~15卷이면 教育의 要求에 滿足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째로 藏書의 總量은 最新의 資料, 更新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로 複本은 總數에 計算하지 않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學校圖書館 資料 全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館總數	奉仕對象者	藏書數	年間增加冊數	全國學生總數
권 259	명 333,150	권 583,929	권 135,586 (1961~1962)	명 592,177 (1959)

※ 全國中高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는 除外)를 對象으로 본 統計

위의 統計에 依하면 圖書館을 가진 學校 學生에는 1人當 1.75卷의 圖書가 들어가고 年間 1人當 增加率은 0.41卷을 보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圖書館을 가진 學校일지라도 學生數에 比하여 藏書數가 너무나 不足함은 寒心스러운 일이다. 259館中 藏書 量의 基準(現 閣令案 基準)에 맞는 圖書館이 42校임은 그동안의 文教施策이 怨望스럽기만 하다. 더우기 全國의 學校가 圖書館 有無를 不問하고 學生 1人當 돌아가는 圖書는 0.9卷, 年間(1961~1962) 學生 1人當 增加되는 圖書는 0.23卷 밖에 안된다. 平均 한 學生이 1卷의 圖書를 읽을 程度가 못되고 5년이 지나야 한 卷의 책이 한 學生의 손에 쉬

여진다고 하는 事實은 얼마나 不幸한 일이며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 藏書의 構成 比率問題

資料의 量的 基準만으로는 滿足할 수 없으며 그 量은 學校教育의 各部分에 均衡잡힌 集書의 結果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出版現況에는 多少 無理가 있기는 하지만 基準을 定하지 않고 集書가 行해져서는 안된다.

基準을 세우는데는 學校圖書館의 資料를 實際로 多數 蒐集하여 그 속에서 基準을 發見하는 方法과 教育課程의 分析, 利用者인 學生의 要求調査와 利用調査, 教科에 依한 資料利用의 頻度, 教科 時間配當의 單位等 基礎資料에 依한 方法 등으로서 一般의 藏書構成 比率의 基準을 樹立하고 그 위에 그 學校의 教育目的에 따라 特殊性을 加하여 基準을 定하는 것이 무엇보다 理想的이다. 日本은 學校圖書館 基準에 藏書配分 比率를 定하여 資料의 質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對한 研究와 基準이 없이 集書를 行한다는 것은 無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自己(學校圖書館資料)를 거울에 비춰보는 藏書構成의 比率 基準은 圖書의 利用狀況과 相關성이 있으며, 信賴性있는 讀書傾向의 調査와 올바른 讀書指導가 可能하며 學習의 效果를 期待할 수 있기 때문에 先決된 問題中의 하나이다.

全國의 學校圖書館 藏書比率를 檢討해 보는 意味에서 標本的으로 釜山市 學校圖書館 現況 報告書에 나타난 結果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國民學校 藏書中에는 文學關係 藏書가 52.4%로 지나치게 比重이 많으며 科學關

係 藏書가 적다. 中學校는 語學이 13% 文學이 37%로 比較的 比重이 많으며 科學, 歷史關係 藏書가 적다. 人文系 高等學校는 社會科學이 13.6%, 語學이 10%로서 比重이 크고, 應用科學 藝術部分의 圖書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以上에서 나타난 藏書 比率는 教育課程의 運行에 있어서나 讀書發達 心理上에 있어서 許多한 問題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文教政策이 좋은 教育目標을 내세우면서 가장 經濟的인 圖書資料 하나 計劃하고 整備하는데 얼마나 傍觀視하였는가를 忖측할 수 있다. 國民學校의 藏書構成이 가장 惡條件에 놓여 있으므로 文教部는 兒童圖書 出版에 積極的인 關心과 補助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3. 非圖書 資料의 蒐集方案 問題

學校圖書館用 適書가 不足함에 비추어, 均衡잡힌 集書構成이 어려운 實情과 農村學校의 逼迫한 經濟事情에 비추어 非圖書資料의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非圖書資料中에도 돈을 많이 드리지 않고 求할 수 있는 것과 돈을 드려도 求할 수 없는 資料의 蒐集方案에 對하여 말하고 싶다.

政府 刊行物, 各種 國民施策을 爲한 P R 資料(Pamphlet, Leaflet, 寫眞等) 各種 公共團體 '文化團體, 研究所, 學會等에서 發表되는 資料는 可變性 있는 教科指導에 最新한 資料로서 教科書와 現實과의 時差를 적게 하는데 貴重한 資料임을 널리 各機關에 P. R 活動을 하여 協力을 얻을 길을 마련해야 할 줄 안다. 現在 圖協의 配付函을 通하여 蒐集하는 方法이 있으나 學校圖書館은 그 惠澤이 적었던 實情에 비추어 앞으로 圖協의 努力에 依하여 各

機關으로부터 協力을 求하고, 많은 量의 非圖書 資料를 配付函을 通하여 조그만한 地方의 圖書館에 이르기까지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다.

各地方에서는 地方 圖書館 協議會가 中心이 되어 地方의 各種 協力機關에 널리 理解시켜서 蒐集할 수 있도록 할 것과 學校自體로서는 教師 및 學生의 協力과 手酷로서 버어티칼 자료를 蒐集하는 등 特別히 國民學校에서는 授業 準備物로서 揭示한 資料가 그 時間後엔 流失되었던 過去의 事例에 비추어 學級擔任의 協力을 얻어 버어티칼 파일링(Vertical Filing)하는 등 資料 購入費를 代身하여 實務者의 努力과 誠意가 要請된다.

4. 基本圖書 目錄의 研究와 作成問題

學校圖書館 資料의 中核이 되는 必備의 圖書가 基本圖書(basic books)이다. 教科의 學習指導, 生活指導, 特別活動 指導에 없어서는 안될 資料 即 教科書를 代役하고 自發的 學習活動을 可能케 하는 重要한 圖書인데 例를 들면 各科事典, 世界的 名作集, 各種의 概論의 敘述作, 名畫複製集 運動規則集 등의 圖書인데 日本의 學校圖書館 基準案에서는 基本圖書에 있어서 必備의 辭典書, 百科事典, 年鑑, 統計, 人名·地名 등의 事典 地圖, 圖鑑等 그 意義를 밝히고, 國民學校에 300種 中學校에 500種, 高等學校에 700種이 必要함을 闡明하였다. 日本의 學校圖書館 協議會는 어떠한 書目이 基本圖書인가에 對하여 全國의 人 組織과 共同研究의 힘으로서 「基本圖書의 研究」를 發刊한것이 契機가 되어 協議會內에 基本圖書 目錄 編輯委員會를 設置하여 繼續適書의 出版과 地域性에 따라 適宜 加除해 나가는 基本圖書 目錄을 刊行

하였음은刮目할만한 일이다. 우리도 이事業을始作하는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믿는다.

5. 複本圖書의 限界 問題

圖書館 資料를 學習指導와 直結시키는 方法의 하나로서 가장 利用度가 높은 圖書는 複本을 備置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問題를 考慮해야 한다.

첫째 學生數(그 圖書를 利用하는 學生數)에 比해서 複本의 量을 定하는 問題이다. 量이 적으면 學生들이 同一한 問題를 同時에 解決하는데 不可能하며 너무 많은 經費의 問題와 圖書館 面積의 問題等으로 經濟的 浪費가 따른다. 여기에는 細心한 注意로서 複本이 必要한 圖書를 定하고 그 圖書의 性質에 따라 複本의 量을 決定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많은 種類의 複本이 學習活動에 必要하게 되면 一定한 面積을 가진 學校 圖書館은 이를 保管 利用하는 方法이 새로 考察되어야 할 줄 믿는다.

6. 出版事情의 問題

圖書館 資料는 出版의 事情과 不可分の 關係에 놓여 있다. 그러나 出版의 營利의 目的과 圖書館 資料의 價値의 利用目的과는 遊離된다. 出版의 收支를 爲하여는 利用 對象者가 많은 一般圖書에 偏重하여 出版되기 때문에 心理主義에 立脚하고 教育의 特殊性을 考慮한 出版物이 不足한 中에서도 特別 心神發達의 差가 甚한 國民學校 兒童을 爲한 研究된 資料가 貧困한 理由도 모두가 出版의 收支에 緣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問題의 解決은 文教部가 教育的 價値가 높은 教育圖書 出版에 積極的인 關心과 援助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나아가서 圖書의 內容의 充實은 勿論 이에 못지않게 形態의 面에 細心한 注意와 研究를 하기 爲해 圖書館과 出版社가 紐帶를 갖고 共同으로 研究하는 一面 學校 圖書館 資料選定委員會를 構成하여 出版物의 質의 向上에 側面的 補助活動이 되었으면 싶다.

B. 資料選擇을 爲한 資料의 問題

選擇을 爲한 資料는 그 種類가 대단히 많으나 이것을 大別하면 그 하나는 學校의 實態를 把握하기 爲한 各種 調查 統計 資料이며 다른 하나는 出版物에 關하여 知識을 얻는 各種 資料이다. 여기에 어려운 問題라고 하는 것은 出版物에 關하여 知識을 얻는 各種 資料이다.

司書教師가 보다 더 適切한 資料를 얻고자 할 때 單純히 記憶을 더듬어 생각해 낸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

現在 生産된 資料의 種類와 量이 너무 많다(過去에 生産된 것도 포함).

날로 새로운 資料가 生産되기 때문에 많은 努力과 注意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圖書館에 必要한 資料를 求하는 具體的인 方法으로는 直接 實物을 보고 選擇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方法이기는 하지만 廣範圍한 實物을 調查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制約을 받는다.

實物의 調査에는 資料의 範圍가 限定된다.

地域의 書店의 數가 限定되어 있다.

實物을 選擇하기 爲하여 여러 사람에게 活用시키는 것은 不可能하다.

司書教師의 時間的 餘裕가 없다.

以上과 같이 前者의 어려운點과 後者의 制約을 緩和시켜주는 것이 各種의 圖書과 非圖書 資料의 目錄 및 紹介의 間接的 資料이다. 間接的 資料는 實物을 볼수 없다는 缺點은 있기는 하나 實物에 가까운 各種 資料의 推薦 및 良書目錄, 書評, 資料解題等 資料의 性質에 따라 教育課程의 關聯性 및 心身發達의 程度를 表示한 資料 即 選擇을 爲한 資料가 出版되어 學校圖書館의 資料構成에 수많은 制約과 煩悶을 解決할 수 있는 時期가 왔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事業에 文敎部 編修局의 關心이 없다고 하는 것은 疑問이 안갈 수 없다.

C. 資料 選擇委員會의 組織問題

學習指導의 効果는 學習資料의 研究없이는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文敎部 및 各市, 道 教育局에 獎學機構의 하나로서 學習資料 選擇委員會를 構成하고 獎學行政에 보다 實效性있는 指導와 資料의 研究 및 普及策이 講究되지 않고서는 안될 줄 믿으며 이를 더욱 그 學校의 事情에 맞도록 具現하기 爲하여 學校 마다 圖書館 運營機構에 資料 選擇委員會를 構成하여 學習資料의 計劃樹立과 整備에 努力하지 않으면 學校 教育의 進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學校에서 組織된 資料 選擇委員會는 學校 教育의 一般의 目的과 그 學校의 特殊 目的에 符合될 수 있도록 資料構成에 努力하고 이 原則을 實現하기 爲하여 協助를 아끼지 않아야 할 줄 믿는다.

II. 資料 整理 및 利用上의 諸問題

A. 非圖書 資料의 整理問題

非圖書 資料中에 視聽覺 資料整理에 關

한 問題인데 各種 資料를 圖書館에 集成하여 整理하고 利用하는 것이 理想的인 것 같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混雜을 이르킬 우려가 많다. 여기에 資料 集散의 得失問題를 研究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

教育에 있어서의 視聽覺의 方法이 極히 無視되고 있음에 비추어 各級學校는 原則적으로 "視聽覺 센터"를 別途로 가져야 하며 職員의 訓練도 實施하고 있으므로 機材의인 視聽覺 資料는 別途로 다루어야 할 줄 믿는다. 經濟의 事情이 許諾되지 않아서 本格的인 視聽覺 센터를 設置할 수 없는 學校에 있어서는 便利한 方法을 講究할 일이며 規模가 작은 學校는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經濟力이 미치는 學校에서 視聽覺 資料를 學校圖書館이 管理한다고 하는 것은 無益한 일이며 規模가 큰 學校는 너무나 煩雜한 일이므로 分散하지 않아서 오히려 損失이 많을 것이므로 버어터널 파일링 할 수 있는 視聽覺 資料만을 圖書館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各種 視聽覺 資料와 標本等 立體的 資料는 그 用途가 높은 場所에 分散은 하지만 資料目錄만은 圖書館에 作成해 두어서 各種 資料의 檢索이 可能하도록 整備할 必要를 느낀다.

B. 바람직한 館外 貸出制度和 問題

圖書館 資料의 보다 理想的인 運用의 方法은 館外貸出이다. 館外貸出은 閱覽時間을 延長하고 餘暇善用의 보다 많은 期會를 提供하는데 理想的인 方法임은 事實이다. 그러나 實際의 面에서 다음과 같은 問題가 惹起된다.

館外貸出은 圖書의 破損率이 極히 높으며 年間 增加率보다 많아졌을 경우 이를 補充할 圖書購入費와 修理 및 製本費가 隨

伴되지 않을 때의 現實의問題, 在籍 學生數에 比하여 圖書의 量이 아주 不足한 時 館外貸出을 하게 되면 館內 閱覽이 萎縮되어가는 現實의 問題, 아침부터 館外貸出을 實施하면 가장 餘暇善用的 좋은 時間인 放課後의 圖書館 利用이 不振하며 閱覽席의 空間이 생기는 일과 오히려 그 環境을 떠나서 學習한다는 것은 “能率이 低下되지 않겠는가”라는 問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以上과 같은 現實의 問題를 考慮하여 館外貸出은 그 學校의 實情에 맞도록 計劃되고 效果的으로 運用되어야 함은 무엇보다도 重要的 일이다. 即 館外貸出 時間과 閱覽席과의 調整, 學生數와 圖書總數와의 調整, 貸出期限과 藏書量과의 調整策 그 學校圖書館의 事情에 依하여 細心한 注意와 計劃 밑에 館外貸出을 行하지 않고서는 그 理想에 達할 수 없으며 得失關係를 考慮해야 할 줄 믿는다.

C. 亡失圖書 및 破損圖書와 不適當의 處分問題

規模가 작고 教育的 目的에서 存在하는 學校圖書館은 恒常 그 資料가 嶄新性을 保有하기 爲하여 新陳代謝가 自由로워야 한다.

不必要한 資料는 利用해서 百害無益하며 두어서 靚한 스페이스의 浪費가 된다. 前者는 教育的으로 미치는 影響이 크고 後者는 運營上 不經濟의이다. 그러기 때문에 果敢하게 除籍 및 廢棄處分을 할 수 있는 基準이 서야 한다.

그러나 現實의으로 圖書는 備品으로서 物品會計法上 拘束을 받고 있는 것이다. 關係法律의 改正은 國家財産의 全體的 管理에 關係되는 것이므로 實際上 어려운

일이며 이 問題의 解決方法으로서는 監査院(새 憲法機關) 및 財務部 關係機關에 建議하여 閣令으로서 現實의 隘路를 打開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줄 믿는다. 더우기 學校圖書館의 開架式 運營에 있어서는 亡失圖書 處理問題가 事實으로 事務執行할 수 있도록 公認되는 일이 時急한 問題이다.

D. 圖書 및 圖書館利用 指導에 關한 問題

學校圖書館이 資料 센터로서 그에 合當한 資料를 아무리 잘 마련해 두어도 그 利用者인 學生들이 이들 資料를 能率의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지 못하여서는 學校圖書館에 對하여 크게 期待할 수 없으며 그들이 一生동안 自己發展을 위한 武裝으로서 終身讀書(Lifetime reading)의 方法을 體得할 수 없기 때문에 이 問題는 圖書館利用 指導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美國과 같이 圖書 및 圖書館利用 指導”(Use of books and libraries)의 커리큘럼과 日本과 같은 “圖書館教育”의 領域에서 다루는 龐大한 커리큘럼과 時間計劃에 依하여 指導하기에는 우리의 實情이 어려우나 臨時 便法을 써서라도 곧 착수해야 할 것만은 當面한 問題이다. 各級學校(國民學校, 中高等學校)에서 커리큘럼은 先進國家의 例에 따르되 우리의 實情이 反映되어야 할 줄 믿는다.

여기에 指導의 方法으로서 이를 獨立된 教科로서 實施할 것인가 아니면 關聯된 여러 教科에 融合시켜서 指導할 것인가의 問題이다. 이 問題는 時期的으로 二段階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하다. 初期에는 他教科를 맡고 있는 教師들이 圖書館에 關한 知識과 研究가 充分히 實驗되어 있

지 않은 段階에 있으므로 獨立된 教科로서 이에 關한 專問의인 司書敎師가 總括하여 맡기로 하고 형편을 보아가면서 漸次 다른 教科에 融合시켜 指導하는 方向으로 나아갔으면 싶다.

圖書館 資料 및 圖書館 利用法을 指導하지 않고 自覺自習하는 習慣과 能力을 크게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을 壯談하고 싶다.

學生들이 進學을 하거나 職業을 가지거나 一生동안 自己向上的 效果的인 方法으로서 他圖書館 資料를 能熟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訓練시키는 教育이 計劃되지 않고서는 他圖書館의 훌륭한 利用者로서 成長하지 못하는 結果가 되어 그들의 將來生活에 不具者를 免치 勿論 他圖書館 發展에 死活問題를 決定지우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國民學校를 卒業하여 進學을 하지 못하고 職業을 가지는 學生에게는 一生동안 이러한 教育의 期會가 다시는 오지 않으므로 얼마나 그들이 不幸한가를 痛感하는 바이며 이 教育의 實行이 얼마나 時急한가를 再強調하고 싶다.

教育은 成長하는 過程임으로 새로운 學習方法은 學生들로 하여금 온갖 手段과 資料를 驅使하여 一生동안 살아갈 수 있는 能力和 作業習慣, 研究習慣을 몸에 붙여주는 일임으로 圖書館教育을 計劃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具體的이며 實効性 있는 學習方法인가를 우리 文教部가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은 바이다.

Ⅲ. 圖書館 資料 經費上의 諸問題

學校設置基準令 가운데 圖書館을 規定

하고 있으면 學校 圖書館을 建設하고 維持하고 運營하는 經費는 當然 公費(國費)에 依하여 支給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公費는 九牛一毛의 格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圖書館 資料가 增加하고 왔음은 畸形的인 發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各 道別 資料 購入費에 대한 1963年度의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慶尙南道の 道費 圖書費는 國民學校에 學級當 1,000원, 中高等學校에는 學級當 2,500원이 支給되었음.

서울 特別市는 學生會費 特別會計로 學生 1人當 10원씩 圖書館費로 計定되었음.

忠清南道는 學生 1人當 每月 10원씩 圖書費로 徵收하였다. 이 以外에도 各道の 例가 많겠으나 이것만으로도 圖書費 捻出에 얼마나 區區하며 難關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恒常 浮動的인 圖書費는 學校圖書館 運營에 적지않은 影響을 주었다. 여기에 拙者의 意見을 붙여 보기로 한다. 圖書費를 經常費와 臨時費로 나누어 經常費는 道 및 市費로 하고 臨時費는 師親會費가 없으니 期成會費로서 策定하여 學校圖書館의 改造, 創設, 施設等에는 臨時費에서 解決하고, 備品の 購入과 資料購入은 經常費에서 支出하되 其中 資料 購入費의 不足額은 學生에게 徵收할 수 있도록 善策이 樹立되어야 할 줄 믿는다.

우리 文教部가 한 教科에 關한 實驗費 習費를 徵收할 수 있게 하면서 모든 教科에 關聯되는 圖書費의 徵收를 許諾하지 않은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安全性 있는 圖書館 運營費가 策定되지 않고서는 計劃性 있고 正常的인 運營을 할 수 없기 때문에 國費에서 負擔하기 어려우던

그 代案으로 最少限度의 圖書費만이라도 學生들로부터 徵收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는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圖書費策定과 支出에 있어 不合理한 實例를 들어 그 是正策을 바라고 싶다.

國費(市, 道費)의 圖書費 支給에 있어서 圖書費를 教育管理 및 學事管理의 需用費 科目下에 한 節로서 策定하여 놓았기 때문에 學校의 事情에 따라 한 科目內에서는 支出變更하여 다른 곳에 使用할 수 있게 되어 學校 管理者에 따라 支給 差額이 생기는 結果가 되었다.

圖書費를 教育管理, 學事管理의 需用費로서 分散시켜 놓았기 때문에 策定된 全額을 使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以上の 事例로 보아 圖書費는 獨立된 科目으로 設定하여 다른 곳에 支出變更할 수 없게 함은 勿論 安全된 圖書購入費로서 確保되어야 할 줄 믿는다.

學生 自治會費만 하더라도 全體 活動費中의 一部로서 圖書購入費를 割當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 部の 活動이 活潑해지면 그 影響을 받게 되어 있다. 特히 한 運動部의 育成을 爲해서는 圖書 購入費는 犧牲되기 마련이다. 이런 點으로 봐서 學生 自治會費 總額中 몇 %는 圖書 購入費로서 充當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自治會費에 圖書 購入費를 加算하여 徵收케 하여 獨立會計로 하든지 어느 한 가지는 擇해져야 할 줄 믿는다.

마지막으로 圖書館 資料費 策定의 內容과 支給의 實際上 問題點을 例들고자 한다.

지금까지 關係當局이 얼마의 圖書費만 支出하면 圖書館 資料 解決이 다 되는 양으로 알고 있다. 非圖書 資料 購入에 對해서는 眼中에도 없었으며 圖書費 支給에 있어서도 單純히 圖書 購入費에만 使用할 수 있게 한 것은 常識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하여 國費에는 消耗性있는 資料 購入이 不可能하며 圖書를 備品으로 看做하면서 圖書修理費는 備品 修理에서 除外하는가 말이다. 우리의 文教財政의 事情이 어려운줄은 充分한 理解가 가지만 圖書館 資料의 種類와 性格에 對한 知識이 없어서 그렇다고 理解하기는 어렵다.

學校圖書館이 年間 必要한 資料費는 얼마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費目으로 配分할 것인가에 對하여 基準案을 作成하는데는 先進諸國의 例에 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參考로 日本 文部省이 定한 學校圖書館 基準에서 나타난 資料(非圖書資料 包含)費를 例들면 學生 一人當 小學校에서 300圓, 中學校 400圓, 高等學校는 500圓이 策定되어 있으며 經費使用에는 圖書費에 55%, 新聞·雜誌費에 15%, 製本費 18%, 備品費(修理·補充) 5%, 消耗品費 5%, 雜費 2%로 各己 配分하고 있다.